

『영미연구』

제61집 (2024): 27-52

<http://doi.org/10.25093/ibas.2024.61.27>

『시녀 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의 저항적 글쓰기*

김 현 정
숙명여자대학교

육 성 희
숙명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에 나타난 오브프레드의 저항적 글쓰기와 독자의 역할을 분석한다. 작품의 배경인 길리어드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한 여성억압적 권위주의 국가로, 이곳에서 여성들은 후세대 재생산 도구로만 간주된다. 대리모 ‘시녀’ 제도 아래에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길리어드는 여성들의 언어를 박탈하고 철저히 감시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자 오브프레드는 글쓰기를 통해 여성을 의미 생산의 주체로 복원시키려 한다. 그녀의 글쓰기는 길리어드의 억압을 피해 이루어지기에 본질적이고 파편화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러한 형식이 오히려 오브프레드의 저항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낮과 밤의 서사가 교차하면서 오브프레드는 이전의 과거를 소환해 자아 정체성을 회복해나가고

* 본 연구는 김현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축약·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저항적 주체로 성장해나간다. 더불어 그녀의 서술에서 강조되는 빈틈과 공백은 독자의 능동적 해석을 유도한다. 독자가 이 빈틈을 메우는 해석 작업 과정에서 오브프레드의 저항정신이 확장되어 독자 자신의 현실로 전이되어, 현실 속 가부장제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녀 이야기』에는 오브프레드의 글쓰기 행위 자체에 저항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독자들의 적극적인 해석 참여를 통해 그 저항성이 작품 너머의 현실 세계로 확장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본고는 작품이 여성 억압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서야 함을 역설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만연한 가부장제에 대해 성찰하도록 촉구한다고 본다. 이처럼 본 연구는 『시녀 이야기』가 작품 내외부에서 끊임없이 여성 억압에 대한 저항성을 환기하고 지속해나가는 과정을 탐색한다.

주제어: 마거릿 애트우드, 『시녀 이야기』, 여성 서사, 글쓰기를 통한 저항, 독자 참여

I. 서론

1985년에 발표된 마거릿 애트우드(Margaret Atwood)의 『시녀 이야기』(*The Handmaid's Tale*)는 권력 구조가 엄격히 위계화된 전체주의 사회 ‘길리어드 공화국’(the Republic of Gilead)을 배경으로 한다. 길리어드는 정치적으로는 공화국을 표방하지만, 그 실상은 남성들로 구성된 지도 계층 ‘야곱의 아들들’(the Sons of Jacob)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가부장적 계급사회다. 환경파괴와 생태계 오염, 질병 등으로 백인 인종의 출생률이 감소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한 길리어드 정권의 중심에는 대리모 ‘시녀’(the Handmaids) 제도가 있다.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길리어드는 여성 중에서 생식 능력이 있는 이들을 선별하여 ‘시녀’로 명명하고 아이를 계속해서 생산하도록 강제한다. 시녀들은 길리어드의 고위 간부 ‘사령관’(the

Commanders)들의 가정에 배정되어 그들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재배정과 대리 출산을 반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길리어드의 후세대를 생산하는, 길리어드에 속박된 국가 자원으로만 기능한다. 길리어드의 사령관 중 프레드(Fred)의 집에 배정된 시녀 오브프레드(Offred)는 억압적 상황 속 대리모로서의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길리어드 이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서술한다. 본고는 오브프레드의 생존 기록의 집합체인 『시녀 이야기』 속에서 그녀의 저항성을 읽어내고자 한다.

『시녀 이야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오브프레드의 저항을 실패 혹은 성공으로 보는 상반된 관점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오브프레드의 글쓰기에 대한 관점도 부정적 해석과 긍정적 해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부정적 시각에서는 그녀의 서술행위가 길리어드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마돈 마이너(Madonne Miner)는 오브프레드와 사령관의 운전수 닉(Nick)과의 관계에서 『시녀 이야기』가 전통적인 로맨스의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이 속에서 오브프레드가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64-65). 에리카 고틀립(Erika Gottlieb)은 자유의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디스토피아 장르의 특성에 비추어 오브프레드의 행보를 ‘무기력한 순응’으로 보며 비판적으로 해석한다(110). 반면, 오브프레드의 글쓰기를 여성의 몸을 착취 및 억압하는 체제에 저항적인 성격을 띤 ‘여성적 글쓰기’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러한 여성적 글쓰기가 길리어드의 단일하고 남성중심적인 지배 담론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국내 학자 김순식과 이선진은 오브프레드가 감정과 느낌, 감각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느슨한 문법구조 아래에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더불어 길리어드에 의해 대상화되는 자신의 몸을 타인과 교류하고 욕망을 발현시키는 실천의 장으로 다시 쓰기를 한다고 해석한다(김순식 36-37; 이선진 131-32).

본고는 오브프레드의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계승하여 그녀의 글쓰기가 여성의 존재 가치를 아끼기 생산에만 국한하려는 길리어드 체제에 저항하여, 여성을 의미 생산의 주체로 복원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을 탐구한다. 특히 오브프레드의 서술 형식

에 주목하여, 파편화되고 분절된 서술이 오히려 그녀의 저항 의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또한 그녀의 서술에 내재된 빈틈과 공백은 독자의 상상력과 능동적 해석을 유도하여 저항 정신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오브프레드의 글쓰기의 영향력을 소설 내부에 국한시켜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에서 나아가서, 그 글쓰기에 대한 독자의 수용과 해석을 통해 오브프레드의 저항 의식이 확장되도록 소설이 구성되어있음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오브프레드 글쓰기의 영향력을 텍스트 너머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오브프레드의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조건인 길리어드의 언어 박탈과 감시 체계를 살펴보고 이에 맞서는 오브프레드의 서술행위를 탐구한다. 그녀의 글쓰기는 길리어드의 억압을 피해서 이루어지기에 파편화되고 재구성이 반복되다는 특징을 띠는데,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저항적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낮과 밤의 분절된 서술행위를 통해 오브프레드가 길리어드 이전의 자신을 지속해서 소환하고 길리어드의 여성억압적 사회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오브프레드 서술의 빈틈과 공백이 독자의 능동적 해석을 유도하며, 이것이 오브프레드의 저항정신을 확장하고 계승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소설의 결말과 에필로그에서 극적으로 나타나는 메타픽션적 성격은 독자로 하여금 빈틈을 메우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오브프레드가 추구한 사회적 저항성이 독자를 통해 지속, 확장되고 있음을 본 논문은 확인한다.

II. 언어 박탈과 감시 체계 속 여성의 글쓰기

길리어드의 지도부는 신앙이라는 대의명분 아래에서 종교 이데올로기가 국가라는 공적 공간과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의 작동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질서를 확립한다. 기독교 이념을 강조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대의로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Atwood 211)¹⁾ 이들은 기독교 교리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전체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사회를 구성한다. 길리어드 계급구조의 정점에는 정권의 설립자와 중요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령관 계급이 자리하며 그 아래에 군인계급 ‘천사’(the Angels), 비밀경찰 ‘눈’(the Eyes), 순찰경비 ‘수호자’(the Guardians)들이 위치하여 사령관들을 보좌하고 국가 이념을 수호한다. 아울러 길리어드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공적 권력을 공고히 한다.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가정은 국가를 지지할 수 있는 기본 세력이자 종교적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하는 가장 우선적 사회 단위로 간주되는 데(강남순 102), 이에 따라 길리어드의 가정은 국가의 위계적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 길리어드의 가정 내에서 사령관은 신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사령관을 가부장으로 한 “가정을 받들고”(household, 81) 있다. 특히 여성들은 정권에 의해 배정된 계급에 따라 가부장에게 봉사하는데, 고위 간부를 남편으로 둔 여성은 ‘아내’(the Wives) 계급으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하녀’(the Marthas) 계급은 잡다한 가사 업무를 담당한다. 출산 능력이 있는 여성은 ‘시녀’로서 고위 간부의 아이를 낳아주는 임무를 수행한다.²⁾

길리어드의 여성 계급은 내조, 가사, 출산 등 가부장제에서 용납가능한³⁾ 여성의 성 역할을 극대화한 것인데, 이 중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을 생산할 수 있는 여성의 생물학적 역할이 길리어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를 담당하는 계층이 바로 시녀 계급으로, 길리어드는 여성들을 시녀의 정체성에 맞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을 레드 센터(Red Center)에 모아두고 ‘재교육’을 시행한다. 재교육은 여성들의 가치를 재생산으로만 한정하고 여성들이 시녀로서의 억압적 삶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길리어드의 이념을 주입하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 이는 시녀들의 언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언어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수단으로써 개인의 세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세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사용 언어에 의해 좌우된다(Sisk 12). 그렇기에 길리어드의 언어 통제 정책은 여성들의 언어를 장악하여 그들을 둘러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다. 이 정책 아래에서 길리어드의 시녀들은 성경을 포함하여 어떠한 문자라도 읽는 것이 금지된다. 책, 신문, 잡지는 압수되고 이념 교육은 영상으로만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을 하지 않을 것이 권장되고, “모든 열매

에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19)과 같이 정권의 이념을 담은 종교적 인사말로만 소통한다. 다른 시녀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금기시되기에 사실상 이들은 침묵 속에 존재한다. 언어가 철저히 통제당하는 상황에서 시녀들은 자신의 세계를 주체적으로 의미화할 수 없고 오로지 길리어드가 제공하는 의미에 한해서만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재교육에서는 길리어드 이전을 기억하는 여성들의 기억을 지우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레드 센터의 책임자 리디아 아주머니(Aunt Lydia)는 오브프레드의 세대를 두고 “과도기 세대”(117)라며, 과도기 세대는 이전 시대의 기억 때문에 길리어드에 가장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기억이 있는 여성들이 길리어드의 생활 방식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도록, 길리어드는 기존에 언어의 기표와 기의가 맺고 있던 관계를 길리어드의 이념에 맞게 재정립하여 새로운 관계의 언어를 통용시킨다. 예컨대 리디아 아주머니는 길리어드 이전의 시대의 자유가 “무엇을 행할 자유”(freedom to)였다면 길리어드에서의 자유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freedom from)라고 설명한다(24). 전자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나 후자의 자유는 길리어드의 여성들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음으로써 생기는 자유로, ‘자유’라는 단어가 길리어드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뜻이 바뀌어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디아 아주머니는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했던 이전 시대와 달리 길리어드의 시녀로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가르치지만(24), 교육에 불복종하는 여성들을 가축용 채찍으로 매질하여 손발을 불구로 만든다. 길리어드의 목적으로 보면 시녀들의 손발은 필수적 부위가 아니라고 밝히는 부분에서(91), 길리어드가 진정으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들의 자궁,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될 길리어드의 후세대일 뿐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런 체계에서 여성들은 “성스러운 그릇이자 걸어 다니는 성배”(136)로만 남는다.

시녀들은 또한 길리어드의 감시를 끊임없이 받는다. 길리어드의 비밀경찰 ‘눈’ 계급의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길리어드의 엄격한 사회 체제는 감시, 즉 정권의 관찰과 응시를 통해 유지된다. 즉 응시의 주체와 응시의 대상 간의 권력관계는 전체주의

적 길리어드 사회의 여성억압 제도로 사용되는데(Deer 228-29), 길리어드의 시녀들은 아내들이나 하녀들보다 더 철저히 응시 대상의 자리에 놓인다. 아내들은 길리어드 사회의 고위 계층에 속해 다른 여성들이 누릴 수 없는 권력을 누리고, 누구도 하녀의 얼굴이 드러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서술에서는(9) 하녀들마저 길리어드의 감시 체제에서 시녀들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음이 나타난다. 반면 시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마주치거나 얼굴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고 항상 머리 가리개를 착용하여 눈을 내리깐 채로 있으므로 시야가 제한된다.⁴⁾ 하녀들에게는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소통망이 있어 서로 수다를 떨 수 있지만(11), 시녀들은 늘 뚝딱 짝을 이루어 다니며 서로를 감시해야 하기에 친교를 맺을 수 없다. 게다가 둘 중 한 시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연좌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녀 간의 연대는 더더욱 저지되어, 시녀들은 길리어드의 감시 체제 속에서 고립된다.

언어를 박탈당하고 감시당하는 길리어드의 여성들은 오로지 국가를 위해 후세대를 생산하는 “다리 둘 달린 자궁”(136)이자 그 생산 능력이 고갈되면 존재 가치조차 소진되는 소모품으로 존재하게 된다. 재생산을 담당하는 국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녀들의 이름이다. 길리어드 체제에서 시녀들은 원래 자신의 이름들을 박탈당하고, 소유격 전치사인 ‘of’와 배치된 사령관의 이름의 결합으로 구성된 길리어드식 이름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소설의 화자 오브프레드의 이름은 소유격 전치사 ‘of’와 현재 배정된 사령관의 이름 ‘프레드’의 합성어로 ‘프레드의 소유’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종속적인 이름마저 시녀들에게는 영구히 부여되지 않고, 이들은 새로운 사령관의 집으로 재배치될 때마다 그에 맞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아 ‘오브글렌’(Ofglen)이나 ‘오브워렌’(Ofwarren)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이름 속에서 시녀들은 손쉽게 대체된다. ‘오브프레드’라는 이름 아래에는 화자, 그녀 전에 파견되었던 시녀, 그녀 이후에 올 시녀 등 헤아릴 수 없을 시녀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회가 호명한 시녀의 이름에 속박된다. 남성들은 계급과 상관없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내들과 하녀들도 본인의 이름이 허용되는데 오직 시녀들에게는 길리어드 체제에서 허용하는 이름만 부여되는 것이다. 길리어드는 시녀들을 남성에 빗대어 존재하는, 남성의

소유물이자 길리어드 소유의 국가자원으로 호명함으로써 개인의 개별성을 지운다. 소설의 서술자인 오브프레드 역시 시녀로서의 정체성에 따른 종속적 행동규범과 후세대 생산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길리어드의 성관계 방식인 의례(Ceremony)⁵⁾나 시녀들의 출산과 같이, 재생산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의무가 필요할 때는 오브프레드에게도 할 일이 주어지지만, 그 외에는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기다림만이 남는다. 남아도는 시간에 대비하기 위해 오브프레드는 레드 센터에서 배운 대로 휴식과 명상을 시도한다. 레드 센터는 시녀들에게 ‘휴식과 명상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시녀들이 한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교육시켰는데, 오브프레드는 곧 이 교육이 항상 가만히 남성을 기다리는 데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던 것임을 깨닫고(70) 기다림의 시간 동안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생산적인 일은 사령관 프레드와의 밀회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사령관은 길리어드 체제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고위 간부지만, 본인이 세운 엄격한 사회질서에 그 자신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적 태도로 길리어드에서 금지된 잡지와 책을 수집하고 밤마다 시녀와의 밀회를 즐겨왔다. 이번 오브프레드, 즉 화자 또한 사령관의 서재로 불러 와 스크래블 단어 게임에 동참하기를 제안 받는다. 밀회를 수락하는 대가로 오브프레드는 사령관에게서 잡지와 책을 탐독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사령관의 이러한 ‘호의’는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오브프레드가 시녀로서의 삶을 견딜 수 있도록 조그만 일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오브프레드가 금지된 언어에 접근하여 자신의 욕구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녀는 게걸스럽게 책을 탐독하면서 사령관의 펜을 훔치고 싶은 욕망에 휩싸인다. 사령관의 펜은 길리어드의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길리어드의 사회적 권력을 의미한다. 오브프레드는 사령관의 펜을 보면서, 시녀들이 문자와 서술에 접근할 수 없도록 교육하기 위해 쓰였던 레드 센터의 구호 “펜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Pen Is Envy)를 떠올린다(186). 레드 센터의 구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남근선망(penis envy) 개념의 패러디다. 여성에게는 남근이 없기에 남성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들을

선망하게 된다는 개념을 두고, 제인 갤럽(Jane Gallop)은 ‘남근’을 단순히 생물학적 신체 기관이 아니라 남성의 사회적 권력이 투과된 상징으로 본다(96-97). 역사에서 사회적 권력은 남성에게만 허용되었기에 여성들은 남성만이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 사회적 권력을 선망해 왔다는 것이다. 길리어드의 사회적 권력, 즉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은 언어와 서술의 매개인 ‘펜’으로 나타난다. 펜을 독점하기 위해 길리어드는 구호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언어를 시도하거나 탐해서도, 감히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왔지만, 독서와 스크래블 게임 등으로 언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그녀는 펜의 위력을 깨닫고 그것을 탐한다. 자신의 욕망을 자각한 오브프레드는 “아무 내용도 없는 기나긴 괄호들”(69)을 자신의 글과 말로 채우기 시작한다. 길리어드의 시녀로서의 삶 속 수많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적 조건과, 길리어드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방문이 허락된 사령관의 서재라는 공간적 조건들을 반전시켜 자신의 서술의 조건으로 삼은 것이다. 그녀는 길리어드의 일상을 기록하고 길리어드 이전 과거의 삶을 기억해내며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풀어낸다.

오브프레드가 스스로 서술, 즉 묘사하고 기록하고 서사를 창조하는 행위는 길리어드가 여성에게는 금지하는 생산이다. 여성의 의미 생산, 서사 생산은 단순히 금칙을 깨는 정도를 넘어서, 길리어드 체제가 작동하고 유지되게 하는 기본적인 논리에 전면으로 도전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무엇을 전달하고 전달하지 않을지, 어떻게 전달할지에 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오브프레드에게 있다. 길리어드는 여성의 생산을 오직 아기의 생산으로만 한정하지만, 오브프레드는 수동적이지 물적인 여성의 정체성으로 남기를 거부한다. 그녀의 서술은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의미 생산의 주체, 즉 서술 주체로까지 확장시킨다.

하지만 오브프레드의 서사는 연대기 순으로 매끄럽게 진행되거나 인과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글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는 분절되고 파편적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오브프레드가 길리어드의 감시를 피해 조각난 시간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서술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즉, 그녀의 서사가 그녀가 처해 있는 물리적 조건을 드러내는 셈이다. 서술 주체로서 오브프레드는 주어진 상황에서 파편

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서술을 자유롭게 재구성한다. 오브프레드는 자신의 서술을 두고 “이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 “전부 다 재구성한 이야기”(39, 134)라고 말하며 무엇이 사실인지 창작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서술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예를 들어 오브프레드는 길리어드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헤어진 그녀의 남편 루크(Luke)에 대해 서술할 때 재구성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쿠데타가 발생하자 오브프레드는 남편과 딸과 함께 캐나다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길리어드의 군인에게 잡히면서 오브프레드는 가족과 이별하고 레드 센터로 끌려간다. 헤어진 남편 루크가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오브프레드는 루크가 총에 맞아 죽는 결말과 루크가 길리어드에 잡혀 심문당하는 결말, 루크가 국경을 넘어 탈출에 성공하는 결말을 한 번에 제시한다(104-06).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함으로써, 오브프레드는 루크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다른 모습의 루크를 한꺼번에 믿는다”고 언급한다(106). 마찬가지로 오브프레드는 스크래블 게임을 끝내고 사령관에게 키스해주면서 그를 찌르고 탈출하는 상상, “수프처럼 끈적거리는 피가 관능적으로 그의 몸에서 쿵쿵 흘러나와 내 손을 적시는 상상”에 대해 생생하게 서술하면서도 곧이어 “솔직히 그런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 나중에 덧붙인 부분일 뿐이다”(140)라며 자신의 서술이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추후에 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전면에 나타낸다.

이렇게 일관적이지 못한 글쓰기는 길리어드 사회의 담론이 개개인의 삶에 가하는 “재현적 폭력”의 결과다. 억압적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표현하고 재현해내기관 불가능한 것이다(강의혁 22). 오브프레드는 이런 재현 불가능성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감시를 피해 혼자 머릿속에서 말로 이야기를 지어낸다.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재구성하여 전달하면서, 오브프레드는 자신의 서술에서 ‘당신’을 직접 부른다.

나는 이 서글프고 굶주리고 황폐하고 절뚝거리고 사지가 절단된 이야기를 계속 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 무슨 이야기라도 털어놓다 보면, 적어도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기 있어서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당신한테 털어놓음으로써, 당신이 존재할 것을 의지로 명하는 바이다. 나는 이야기한다, 고로 당신은 존재한다. (267-68)

글쓰기는 잠재적 독자를 상정하여 독자와 소통하는 행위인데, 오브프레드의 서술 역시 ‘당신’, 즉 독자 혹은 청자를 호명하며 잠재적 독자를 환기한다. 재현의 폭력성에 맞서는 파편적이고 재구성적인 서술행위를 통해 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성 차별이 굳건한 현실 세계의 한계 속에서 오브프레드의 분절된 글쓰기는 닿을지도 모르는 타인을 향하며, 그럼으로써 생존과 저항의 의지를 시사하게 된다.

Ⅲ. 낮과 밤 서사에서의 오브프레드의 저항

길리어드의 규율과 질서 사이에서 감시를 피해 이뤄지는 오브프레드의 서술은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과거와 현재, 그곳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분절화하고 파편화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오브프레드의 글쓰기의 한계가 아니라, 저항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소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절은 낮과 밤의 구분이다. 『시녀 이야기』의 목차 구성을 보면 짝수 장은 ‘쇼핑’(Shopping), ‘대기실’(Waiting Room), ‘집안 식구들’(Household) 등 길리어드의 일상이 제목으로 붙여졌고 홀수 장은 일련의 ‘밤’(Night) 장들로 구성되어있다. 오브프레드의 이야기가 낮 서사와 밤 서사로 뚜렷이 나뉘고 이 낮과 밤의 서사가 교차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낮 서사는 길리어드의 공적 영역, 즉 길리어드 규율에 맞추어진 시녀의 일상, 구제의식(Salvaging)⁶⁾, 기도부흥성회(Prayvaganza)⁷⁾ 등 길리어드의 행사에 참여한 경험들이 포함된다. 반면 밤 서사에서 오브프레드는 주로 길리어드 이전 시대의 기억을 회상하며

자신의 사적 영역을 탐색한다.

낮과 밤의 교차는 길리어드가 일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길리어드의 규율과 길리어드가 없애려고 하는 과거 시대의 생활상을 병치시켜 오브프레드는 길리어드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든다. 낮에는 길리어드의 감시를 받고 길리어드가 허용한 정체성으로만 살아가지만, 밤은 “내 시간, 나만의 시간, 입만 다물고 있으면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37)이다. 이 시간대에 오브프레드는 길리어드에 의해 사라지고 묻힌 과거를 소환해낸다. 따라서 길리어드는 입체적인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존재했던 과거를 덮어두려고 하지만, 오브프레드의 밤 서사는 과거의 자신을 계속해서 소환한다.

내 이름은 오브프레드가 아니다. 지금은 금지되어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만, 내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다. [...] 나의 진짜 이름에는 마력이 있다. 상상할 수도 없이 아득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부적 같은 마력이. 밤마다 내 싱글 침대에 누워 두 눈을 감으면 그 이름이 눈앞에 어른거리며 떠다닌다. 손에 닿을락 말락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떠다닌다. (84)

과거를 계속해서 소환하는 행위는 오브프레드가 자신의 “자아를 보존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Feuer 84)이다. 밤 서사에서 오브프레드는 길리어드의 해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가진 모습을 그려낸다. 오브프레드가 아닌 진짜 이름으로 불리던 그녀는 대학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했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목숨을 걸고 길리어드 탈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입체적이며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은 성 역할을 극대화한 길리어드 여성의 범주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의 기억을 갖지 못한 다음 세대의 시녀들은 체제에 맞추어진 정체성만 가지지만, 오브프레드는 밤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진짜 자아를 불러낸다. 따라서 낮과 밤이 교차하는 오브프레드의 서술은 과도기 세대로서 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저항이 된다.

낮 서사와 밤 서사가 교차하는 구성은 길리어드의 현재와 과거를 대비시켜서, 과거가 현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는 문제적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현재를 재구성하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준다. 오브프레드는 밤 서사에서 나타나는 길리어드 이전 시대가 낮 서사 속 길리어드의 모습보다 결코 더 나은 세상은 아니었음을 밝혀낸다. 과거에도 존재했던 여성 차별을 짚어내며 그녀는 그것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 과거에 오브프레드는 여성 대상 혐오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해도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무시했다. 그녀는 당시의 여성들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도 사회 대신 만나는 남성을, 여성 자신들을 바꾸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수정주의자”(227)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길리어드로의 체제 전환의 책임은 이렇게 근본적인 성차별 문제를 회피하는 사고에도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56-57, 226-27). 이렇게 낮과 밤의 교차로 인해 문제적 과거를 밝혀내고 자신을 성찰하는 오브프레드의 모습은 루크와의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오브프레드는, 낭만적으로만 그려지던 루크와의 연인 관계에서도 사실은 사령관과의 비대칭적 관계와 유사한 성별 권력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길리어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브프레드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지만, 오브프레드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루크가 자신을 “돌봐 주겠다”고 위로하고 대수롭지 않은 듯 넘기는 모습을 떠올린다(179). 당시 오브프레드는 그가 벌써 자신을 하대(patronize)하고 있고 둘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인지하였지만, 자신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것뿐이라고 치부해버린다. 묻혀버린 과거의 문제는 현재에, 그녀의 서술 속에서 제기된다. 오브프레드는 그 당시에 자신이 루크마저 잃을까 두려워 그의 가부장적 모습을 묵인해버렸음을 시인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았던 것인지 비로소 질문을 던진다(182).

과거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오브프레드가 현재의 자신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친구 모이라(Moira)를 기억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오브프레드가 여성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여권운동가인 어머니와 갈등을 겪던 것과 달리,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모이라는 여성단체 출판부에서 일하며 데이트 강간 등 최신 여성 의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페미니스트였다. 길리어드로 전환된 이후에도 모이라는 레드 센터 화장실에 반체제적인 낙서를 하여 길리어드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레드 센터 탈

출을 두 번이나 감행한다. 가부장적 길리어드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이라의 모습은 오브프레드의 본보기로 작동하는데, 이런 모이라의 강인함은 오브프레드의 서술에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모이라가 레드 센터를 탈출해서 연락이 끊겨도 오브프레드는 계속해서 저항의 상징으로 모이라를 떠올린다. 사령관 프레드의 집에 배정받은 지 사흘째 오브프레드는 이전에 파견됐던 시녀가 옷장에 새겨놓은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그 빌어먹을 놈들한테 절대 짓밟히지 말라”(Nolite te bastardes carborundorum)는 라틴어 문구를 보고서 전임자의 얼굴을 모이라로 상상한다(52). 또 최소한의 물건만 주어진 시녀 방에서도 모이라라면 선풍기를 해체해서 날카로운 날개 들만 남기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171). 이렇듯 오브프레드의 서술 속 모이라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간직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모이라는 탈출에 실패하여 길리어드의 고위 간부들을 위한 향락적인 비밀 클럽 ‘이세벨의 집’에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었다. 모이라는 길리어드에서 탈출할 의지를 잃고 체념한 모습을 보여준다(249). 오브프레드도 모이라의 목소리에서 의지 결여(indifference)를 느끼지만, 모이라가 자신처럼 되는 것은 싫다며 그녀가 영웅적이고 극적인 탈출을 이뤄내길 바라고 모이라의 여러 탈출 시나리오를 생각해낸다.

나는 모이라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탈출해서 이번에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모이라가 ‘이세벨의 집’을 폭파시켜서, 그 속에 있던 사령관 50명을 한꺼번에 날려 버렸다고 말하고 싶다. 뭔가 대담무쌍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끝내 버렸다고 말하고 싶다. 뭔가 엄청난 일을, 그녀에게 어울리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250)

표면적으로 이 탈출 시나리오들은 오브프레드가 모이라에 대한 희망을 서술한 것이며 실제 모이라의 결말이 아니다. 그러나 모이라의 결말을 영웅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브프레드는 길리어드를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스스로 생각해내게 된다. 실제 모이라가 저항정신과 탈출 의지를 상실한 것과 달리 오브프레드는 그녀를 영웅으로 상상하여 모이라의 정신적 힘과 용기를 서술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강

화한다. 이렇듯 실제와 달리 인물 간 관계와 결말, 서사를 재구성하는 그녀의 서술 행위는 오브프레드의 저항적 면모를 보여준다.

이렇듯 오브프레드는 길리어드의 체제가 강요하는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정체성에 가두어지기를 거부한다. 그녀의 서술은 낮과 밤의 서사로 나뉘어 재구성되면서, 자신의 과거와 다양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소환해내고 복합적인 삶의 경험과 정체성을 지켜낸다. 또한 과거와 새롭게 맺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저항적 주체로 성장해나간다. 다시 말해 오브프레드의 글쓰기는 길리어드의 체제 속에서 주체성을 잃고 살아가던 “아무 즐거움이 없는 [...] 무의미한”(215) 삶에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부여하는, 자아 정체성 회복을 향한 여정이자 주체로 거듭나는 역동적 과정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브프레드는 체제에 의해 규정지어진 대상이 아닌, 자신만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기억을 지닌 복합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난다.

IV. 재구성된 이야기의 빈틈과 독자의 참여

한 가지 사실을 여러 버전으로 전달하고 낮과 밤 서사를 재구성하는 오브프레드의 서술은 이야기의 버전들 사이에 빈틈을 수반한다. 자신의 서술에 나타나는 이런 특성을 인지하기라도 하듯, 오브프레드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괄호 사이의 백지이자 다른 사람들 사이의 여백”(228)으로 규정한다. 재구성 사이 ‘백지’와 ‘여백’, 즉 오브프레드가 전달하는 서사 사이에 완벽하게 서술되지 않는 부분은 소설의 결말에서도 나타난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오브프레드는 정체불명의 무리에게 체포되지만, 이들의 정체는 길리어드의 ‘눈’ 혹은 반(反)길리어드 세력 ‘메이데이’(Mayday) 두 가지 가능성으로 암시된다. 이들은 오브프레드가 국가기밀법을 위반했다며 그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몰래 연인관계를 맺어온 닉은 오브프레드의 본명을 부르고 반길리어드 조직의 암호 ‘메이데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믿고 뱀에 타라고 한다(293-94). 오브프레드는

진실을 모르는 채로 “암흑으로 아니 어찌면 빛으로”(295) 향해 간다며 자신의 생사에 대해서도 여백으로 서술을 끝맺는다. 그러나 이런 서사의 불확실한 부분, 즉 ‘백지’와 ‘여백’들은 텍스트로의 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오브프레드의 저항정신을 확대하는 지점으로 작용한다.

볼프강 이저(Wolfgang Iser)는 문학 텍스트가 ‘빈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작품은 저자의 텍스트가 독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에서 “독자의 상상력을 인도해 줄 구조화된 표식”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완전체로 존재하기란 불가능하다(9). 이때 독자의 상상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텍스트의 빈틈이다. 이 ‘구성적 부재’는 청자 혹은 독자들이 텍스트의 빈틈을 메움으로써 텍스트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다(Freund 145). 오브프레드의 서술 속 빈틈을 계속해서 인지하게 된 독자는 서술의 부재, 빈틈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를 통해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텍스트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재구성된 서술 사이의 틈이 가장 부각되는 지점은 작품의 에필로그다. 에필로그 장에서는 오브프레드가 재구성한 이야기마저 사실은 후대에 재구성된 것임이 밝혀진다. 길리어드에서 대략 200년이 지난 시점에 남성 역사학자 파익소토(Peixoto)는 “『시녀 이야기』와 관련한 사실 입증의 문제”라는 제목의 학술발표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시녀 이야기』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한 테이프였다는 사실과 함께 테이프를 발견한 파익소토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정리 후 재구성하여 제목까지 붙인 버전이었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메타픽션적 특징은 독자들이 다시 한번 오브프레드의 서술에 있는 빈틈과 공백들, 즉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의 간격”(57)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파익소토는 오브프레드의 부름을 들은 청자 중 한 명으로서 그녀의 텍스트를 읽고 서술 속의 빈틈을 짚어내는데, 그는 역사적 사료로서 테이프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오브프레드의 테이프가 진실인지, 오브프레드가 누구인지, 댐에 탑승한 이후에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등 여러 질문을 던진다.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이프 속 이름들이 대부분 가명임이 드러나며(306) 오브프레드의 서술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진다. 오브프레드의 주변 인물들을 특정하여 역으로 추적해내고자 파익소토는 사령관

의 정체를 프레드릭 R. 워터포드(Fredrick R. Waterford)일 가능성과 B. 프레드릭 저드(B. Frederick Judd)일 가능성으로 좁혀낸다(306). 그러나 이는 오브프레드의 서술을 명확하게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오브프레드가 한 가지 진실을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제시했던 것과 유사하게 그녀의 서술조차 여러 가능성으로 존재하게 만든다. 파익소토가 지적해내는 오브프레드의 빈틈들은 재구성에서 비롯되는 빈틈들에서 더해져 오브프레드의 서술을 해석의 대상으로 위치시킨다.

동시에 독자에게는 파익소토의 해석에 대해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파익소토는 발표 자리에서 길리어드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제시하는데 그는 길리어드의 저출생 문제를 두고 무분별한 산아제한만을 원인으로 간주하며 가임여성을 탓한다. 그러나 이는 환경 문제와 같은 다른 요인으로 불임률이 증가한 사실을 간과하는 해석이며, 오히려 과거의 임신 중절 시술을 크게 문제 삼는 길리어드의 논리와 닮아있다. 길리어드 체제를 관통하던 가부장제의 흔적은 파익소토가 행하는 분석뿐 아니라 그 인물 자체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시녀 이야기』 제목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영어단어 ‘tale’이 여성의 질을 의미하는 비속어 ‘tail’과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오브프레드의 서술과 길리어드의 여성억압적인 시녀 체제를 저속한 성적 농담의 소재로 전락시킨다. 이외에도 그는 길리어드 시녀들의 탈출을 돕는 단체 ‘언더그라운드 피메일로드’(The Underground Femaleroad)를 두고 ‘약하다’라는 뜻의 영어단어 ‘frail’과 섞어 ‘언더그라운드 프레이로드’(The Underground Frailroad)로 바꿔 부르는 등 성차별적 모습을 보여준다(301). 이러한 모습이 반영되기라도 하듯 파익소토의 해석은 가부장적 체제에 서술로 저항하고자 하는 오브프레드의 의지를 발굴해내지 못한다. 파익소토의 시선은 오브프레드를 역사적 궁금중이자 학문적 논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데 그치고(310), 그의 질문들은 무엇 하나 명확하게 대답이 되지 않은 채 “질문 있습니까?”(311)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끝난다.

이 마무리는 서술의 빈틈들이 작품 속에서 메워지지 않고 그 대신 오브프레드의 이야기가 “지속적인 해석의 대상”(장정희 222)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불어 가부장적 체제에 서술로 저항하려는 오브프레드의 의지를 발굴해내지 못한 “남성적 학문적

접근의 실패”(Deer 210)를 보여준다. 오브프레드의 텍스트는 파익소토가 한 번 실패한 상태로 독자의 손에 전달된다. 그녀의 텍스트를 전달받은 독자들은 오브프레드의 말하기와 파익소토의 발표 사이의 관계를 유추하는 책임이 주어지고, 이 빈틈을 메우는 작업을 통해 텍스트 속에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독자만의 빈틈 메우기, 독자만의 해석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시녀 이야기』의 독자들이 텍스트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3의 서술행위자가 될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에 포함된 빈틈을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으로 구체화하고, 독자의 참여는 텍스트를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Freund 145). 이때 독자의 상상력은 현실을 반영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에서 비롯된 상상력을 통해서 서사는 독자의 삶으로 다가온다(Iser 38).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독자들은 독자가 살아가는 현실을 반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녀 이야기』는 독자의 현실이 과연 길리어드와 얼마나 다른지, 길리어드와 같은 사회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가졌는지, 이성과 논리를 자랑하며 길리어드를 역사 속의 관찰 대상으로만 여기는 길리어드 미래 시대와는 얼마나 비슷한지 질문을 던진다. 오브프레드의 서술을 통해 그녀의 청자, 즉 『시녀 이야기』의 독자들은 서술 속에 나타나는 길리어드 이전의 시대, 길리어드 시대, 길리어드 이후의 시대 전반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브프레드의 회상에서 등장하는 길리어드 이전 시대에서는 여성을 향한 억압과 성차별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길리어드 시대는 여성 착취가 국가체제와 제도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길리어드 이후의 미래 시대는 그 이전 시대들과 객관적, 학문적 거리를 유지한 채 성차별 또한 과거의 산물로 남은 듯한 모습이지만 파익소토의 성차별적인 발언에서는 미래 시대에도 여전히 성별 권력이 사라지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시녀 이야기』는 여성 억압의 현실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담론이 쉽게 근절되지 않은 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오브프레드의 저항적인 글쓰기를 계속해서 행해져야 할 행위로 독자에게 각인시킴으로써(장정희 225)

오브프레드의 서술 속에 담긴 저항정신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들이 저항의 메시지를 독자 자신의 삶에 엮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오브프레드의 서술행위 자체가 아니라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독자들의 수용을 통해 오브프레드의 서술행위에 담긴 사회저항적 성격이 계승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자에게 확대된 사회 저항성은 그 대상 또한 길리어드에만 그치지 않고 독자의 현실을 지배하는 가부장제에 대항할 역동이 된다. 텍스트의 해석과 재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공저자로서 『시녀 이야기』의 독자는 오브프레드의 저항적인 글을 이어서 쓰는 계승자가 된다.

V. 결론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는 여성억압적 상황에서도 오브프레드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지속되는 저항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역사적 사실과 현실을 반영하여 작품의 현재성을 구현한다. 여성의 출산 능력만 착취하는 극도로 전체주의적인 사회의 설정 때문에 소설은 과학 소설이나 디스토피아 소설, 판타지 소설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소설의 많은 부분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⁸⁾ 실제로 애트우드는 수기 『나는 왜 SF를 쓰는가』(*In Other Worlds: SF and the Human Imagination*, 2011)에서 『시녀 이야기』를 집필할 때 “역사상 인간이 언젠가 어딘가에서 이미 해본 적이 없는 일이나, 인간이 그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미 동원해보지 않은 수단은 넣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따랐다고 밝혔다(88).

시간의 흐름과 여성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격 또한 거세게 이루어지며 여성 차별은 부인되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은 여성 평등을 향한 움직임의 가능성이 보이지만 해도 선제적으로 시작되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광범위하고 은밀하게 진행된다

(Faludi 12-14). 『시녀 이야기』에서 애트우드는 이러한 반격에 대해 “즉시 변화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천천히 데워지는 목욕물처럼 자기도 모르게 익어 죽어버리는 거다”(56)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반격은 분명하고 압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Faludi 13). 그리고 『시녀 이야기』는 반격이 거세질 때마다 그 역동성을 회복한다. 작품은 1960-70년대의 미국 여성운동과 1980년대 보수화 시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동명의 영화(1990), 오페라(2000), 텔레비전 드라마(2017) 등으로 제작되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권 출범 이후에는 여성 인권에 관한 논의가 가열되자 작품은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다시 들었으며, 길리어드 시녀의 복장인 빨간 드레스와 흰색 가리개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여권 시위의 상징이 되었다.⁹⁾ 이러한 지속적인 반향 속에서 2019년에는 소셜 출간 34년 만에 속편인 『증언들』(*The Testaments*)이 출간되어 부커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반격은 작품 자체를 향해서도 이루어져 『시녀 이야기』는 금서로 지정되고 심지어 소각당하기도 했지만, 작품은 ‘불에 타지 않는’¹⁰⁾ 모습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독자를 호명한다. 그리고서 여성 억압과 반격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도록, 작품은 “무시한다는 것은 무지와 달리, 노력해야 하는 것”(56)이라는 판단을 제시하며 독자가 무시 상태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자각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한다. 독자는 『시녀 이야기』를 통해 여성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힘을 내어 살아가도록 하는 의지를 얻게 된다. 이것이 『시녀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소환되는 이유일 것이다.

Notes

1) Atwood, Margaret. *The Handmaid's Tale*. (Anchor Books, 1998). 이후 인용은 페이지 수만 표기한다.

2) 이외에도 하급 계층의 아내 ‘이코노와이프’(the Econowives)나 사령관들의 성적 쾌락을 담당하는 일탈의 공간 ‘이세벨의 집’(Jezebel's House)의 매춘부들이 있다. 길리어드의 여성

계급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여성들은 ‘비여성’(the Unwomen)으로 명명된다. 길리어드의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허용해 왔던 사회적인 성 역할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어기면 여성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셈이다.

- 3) 수전 팔루디(Susan Faludi)에 따르면 가부장적 ‘반격’(backlash)의 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을 “용납 가능한”(13) 전통적인 여성 역할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식적인 음모나 계획이 아니라, 문화와 관행 속에 암묵적으로 내재된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세한 내용은 팔루디의 저서 『백래시』 (*Backlash*, 1991) 참조.
- 4) 김순식은 로라 멀비(Laura Mulvey)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이론을 들어 길리어드의 남성과 여성이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권력관계에 놓여 있음에 주목한다(29). 남성의 응시는 곧 권력이며, 여성은 피관찰자로 남성 주체의 시선에 의해 구경거리로 객체화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코드(David Coad)는 길리어드 정권의 가부장적 억압이 시녀들의 얼굴과 신체를 가리는 가리개인 ‘베일’로 상징된다고 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시녀들의 정체성에 주목한다(54-55).
- 5) 길리어드는 사령관, 아내, 시녀가 참여하는 대리 성관계만을 허용한다. 이는 소설의 제사(epigraph)로도 나타난 창세기의 야곱(Jacob)과 그의 부인 라헬(Rachel), 레아(Leah)의 일화에서 착안한 것이다. 의례에서는 먼저 사령관이 라헬과 레아 관련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시녀는 아내의 무릎에 누워 그의 손을 잡은 자세로 대리 성관계에 동원된다. 길리어드는 이러한 행위를 ‘의례’라 칭하며 시녀 체제를 정당화한다.
- 6) 구제의식은 길리어드의 공개 참여 처형식으로, 대외적으로는 범죄자들을 처형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범 등 체제 이념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7) 기독교부흥회는 길리어드의 대규모 종교행사로 승전 행사나 집단 결혼식 등이 개최된다.
- 8) 작품 속 길리어드의 정책과 제도들은 이란이나 루마니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됐던 여성정책과 유사한데, 파익소토는 길리어드의 산아제한 금지 정책이 1980년대 루마니아의 인구정책과 닮아있으며 시녀 체제는 미국 모르몬 교도의 일부다처제, 2차 세계대전의 포로 제복 등 많은 역사적인 모티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 9)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여성의 임신 중절에 제한을 두는 2017년 텍사스의 임신중절권 제한 법안이나 2019년 5월 앨라배마인간생명보호법(Alabama Human Life Protection Act)에 반대하는 시위, 2020년 10월 워싱턴 D.C.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임명 반대 시위에서 시녀복장의 시위대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각국 정부의 성차별적 정책 반대 시위나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집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0) 보수 세력이 우세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성소수자, 성적 학대, 인종차별 문제 등을 다루는 책들을 학교의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것에 반대하여 특정 책들을 금서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 금서 목록에는 『시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작품은 미국 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선정 미국 학교에서 가장 많이 금서로 지정된 작품 중 하나에 이름을 올렸다. 금서 지정과 책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반격의 물결에 맞서, 에트우드사는 2022년 5월 펭귄 출판사와 함께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특수 제작한 『시녀 이야기』 판본을 공개했다.

인 용 문 헌

- 강남순. 「종교근본주의의 담론과 젠더」. 『신학사상』, 123집, 2003, 1-20쪽.
- 강의혁. 「『대리모 이야기』의 현재성: 희망 없는 시대의 정치학」. 『영미문학페미니즘』, 26권 2호, 2018, 5-36쪽.
- 김순식. 「마거릿 애트우드의 『대리모 하녀이야기』와 『일명 그레이스』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말하기의 전복성」. 『비교문학』, 65호, 2015, 27-58쪽.
- 이선진. 「여성적 글쓰기로 성 지배담론 전복하기—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 『여성학연구』, 30권 1호, 2020, 113-47쪽.
- 장정희. 「디스토피아와 여성의 스토리텔링: 마거릿 애트우드의 『대리모 이야기』」. 『신영어영문학』 74집, 2019, 205-27쪽.
- Atwood, Margaret. *In Other Worlds: SF and the Human Imagination*. Nan A. Talese/Doubleday, 2011.
- _____. *The Handmaid's Tale*. Anchor Books, 1998.
- Coad, David. “Hymens, Lips and Masks: The Veil in Margaret Atwood’s *The Handmaid’s Tale*.” *Literature and Psychology*, vol. 47, 2001, pp. 54-67.
- Deer, Glenn. “Rhetorical Strategies in *The Handmaid’s Tale*: Dystopia and the Paradoxes of Power.” *English Studies in Canada*, vol. 18, no. 2, 1992, pp. 215-33.
- Faludi, Susan.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Three Rivers Press, 2006.
- Feuer, Lois. “The Calculus of Love and Nightmare: *The Handmaid’s Tale* and the Dystopian Tradition.”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vol. 38, no. 2, 1997, pp. 83-92.
- Freund, Elizabeth. *The Return of the Reader: Reader-response Criticism*. Routledge, 2003.

- Gallop, Jane. *Feminism and Psychoanalysis: The Daughter's Seduction*. Macmillan Press, 1982.
- Gottlieb, Erika. *Dystopian Fiction East and West: Universe of Terror and Trial*. McGill-Queen's UP, 2001.
- Iser, Wolfgang.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Johns Hopkins UP, 1974.
- Miner, Madonne. "'Trust me': Reading the Romance Plot in Margaret Atwood's *The Handmaid's Tale*."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37, no. 2, 1991, pp. 148-68.
- Sisk, David W. *Transformations of Language in Modern Dystopias*. Greenwood Press, 1997.

Abstract

Woman's Writing as Resistance in Margaret Atwood's *The Handmaid's Tale*

Hyunjung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ung Hee Yoo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Offred's resistant writing and the role of the reader in Margaret Atwood's *The Handmaid's Tale*. The Republic of Gilead, the oppressive patriarchal state that forms the backdrop of the novel, seizes power under the pretext of addressing declining birth rates, and it reduces women to mere instruments of reproduction. To control women under the suppressive system of the Handmaid surrogacy, Gilead deprives them of language and subjects them to constant surveillance. However, amidst these circumstances, Offred attempts to restore women as subjects of meaning production through writing. Her writing, conducted while evading Gilead's oppression, takes a fragmented and disconnected form, which this paper argues paradoxically reinforces Offred's resistance. As her night and day narratives interweave, Offred summons her past to recover self-identity and grow into a resistant subject. Additionally, the gaps and blanks emphasized in her narratives prompt active interpretation by the reader. Through the act of filling these gaps using their imagination, readers inherit and expand Offred's spirit of resistance, playing a crucial role in realizing the novel's resistance. Consequently, not only is resistance inherent in Offred's very act of writing, but through readers' active interpretive

participation, this resistance extends beyond the literary work into the real world. This study posits that the novel confronts the reality of female oppression and insists on resisting it, urging readers to reflect on the pervasiveness of the patriarchy in their own lived realities. Thus, this study explores how *The Handmaid's Tale* constantly evokes and sustains resistance against female oppression both within and beyond its pages.

Key Words: Margaret Atwood, *The Handmaid's Tale*, woman's narrative, writing as resistance, reader participation

논문접수일: 2024.5.15

심사완료일: 2024.5.30

게재확정일: 2024.6.08

이름: 김현정 (제1저자)

소속: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

이메일: hyunjung.kim@sookmyung.ac.kr

이름: 육성희 (교신저자)

소속: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부교수

이메일: shyook@sookmyung.ac.kr